

여야, 특사단 방북 결과 엇갈린 반응

“정상회담 환영” vs “비핵화 의구심”

여야는 6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으로 하는 대북특사단의 방북 결과를 놓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법진보 진영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일제히 환영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비핵화 의지의 진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바른미래당은 대북특사단의 방북 결과를 환영하면서도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도출을 촉구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남북 간의 협력에 새로운 시대를 여는 획기적이고 전향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여는 획기적 계기”

“北 실질적·구체적 비핵화 의지구체화 못해”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내에서의 모순을 해소하기 위한 민간의 준비를 갖추도록 하겠다”며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에 야당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9월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것을 환영한다”며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비

핵화 및 평화정착을 기대한다”며 “올해에만 3번째 열리게 되는 남북정상회담인 만큼 이번 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을 비롯해 평화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결과물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 역시 “짧은 일정이었지만 큰 역할을 하고 돌아왔다고 평가한다”면서 “추석을 앞둔 18일부터 20일까지로 확정된 남북정상회담에서 또 한 번 한반도에 큰 한가위 선물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는 “아울러 이번 대북 특사 접

견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거듭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확실히 밝힌 만큼 미국 역시 그에 상응하는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기대했다.

반면 한국당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지적하며 대북특사단 방북 결과를 비판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결과를 보며 우려되는 것은 북한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비핵화 의지 및 관련 조치 등을 구체화하지 못한 상태에서 종전선언과 남북관계 개선을 조급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김정은이 핵무기, 핵위협 없는 비핵화를 재확인했다고 하지만 진정성은 불확실하다”며 “비핵화를 위한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을 완전히 폐기하고 불가역적으로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의지 표현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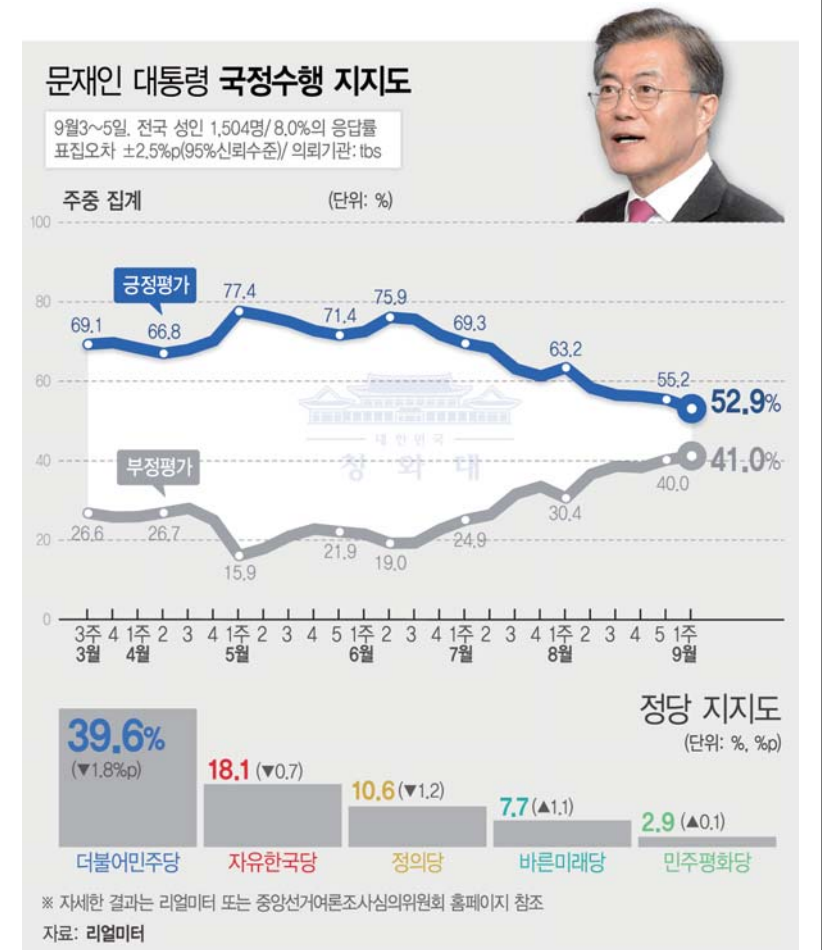
그러면서 “남북관계의 개선 나아가 미북관계의 진전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선(先) 비핵화 의지 및 관련 조치”라며 “9월 남북정상회담 등을 통해 정부가 모든 노력을 경주해달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은 대북특사단의 방북 결과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북측의 발표는 단지 의지를 표명한 것일 뿐”이라며 “구체적인 비핵화 프로그램을 약속하지 못한다면 정부의 선봉은 협상에 대한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핵화 문제의 매듭은 차근차근 풀어야 하는 것이지, 단칼로 자르려고 하지는 안 된다”며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와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도출하는 성과를 낼 수 있길 주문한다”고 말했다.



김정숙 여사, 광주 주월동 경로당 방문.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6일 광주 남구 주월동 한 경로당을 방문 해 어르신들과 식사하기 전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 지지율 52.9% 역대 최저치

5주 연속 하락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또 다시 최저치를 경신해 52.9%를 기록한 것으로 6일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만8787명을 대상으로 주간 집계한 결과, 문 대통령의 9월 1주차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2.3%p 내린 52.9%로 나타났다. 6일 밝혔다. 5주 연속 하락세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부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1%p 오른 41%로, 모름·무응답은 6.1%로 집계됐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달 31일 54.3%를 기록한 후, 임대주택 사업자 혜택 축소 등 정부의 부동산대책과 대북 특별사절단 파견 관련 보도가 있었던 지난 3일에는 54.2%로 별다른 변동을 보이지 않았다.

이후 한국은행이 2분기 국민소득 경제성장률을 발표하고, 집값 급등과 부동산대책 논란이 지속됐던 지난 4일에는 52.3%로 내렸다가 대북 특사단이 방북했던 지난 5일에는 52.8%로 소폭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는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와 관련 “정치권을 중심으로 경제 정책에 대한 강도 높은 공세가 장기화되고, 특히 지난주에 이어 집값 급등과 부동산대책 논

란이 지속되고 있는 등 경제 상황 요인이 크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율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지지율 39.6%를 기록, 2주 연속 30%대에 머물며 하락세를 보였다. 자유한국당(18.1%)·정의당(10.6%)·바른미래당(7.7%)·민주평화당(2.9%) 순이었다.

최근 논란이 된 병역특례제도 개선과 관련해 지난 5일 여론을 조사한 결과, 대상자는 확대하고 수혜자는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이 28.6%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23.8%,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21.4%로 뒤를 이었다. ‘대상자와 수혜자를 모두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도 13.5%로 집계됐다.

이번 주간 집계는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만8787명에게 전화로 시도, 최종 1504명이 답해 8%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8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이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동영 “분양원가 공개, 집값 거품 30%는 잡을 수 있어”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6일 “분양원가만 제대로 공개해도 집값 거품 30%는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분양원가 공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조목조목 분양원가가 공개되기 때문에 집값을 부풀릴 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분양원가 공개는 토지 부분 4개, 토목 13개, 건축 23개, 기계 설비 9개 등 61개 항목에 해당한다”면서 “예를 들어 흙막이

공사에 얼마가 들어갔다, ‘도배에 얼마가 들어갔다’ 등이 공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평화당은 국회에서 부동산 폭등을 잡을 3종 세트인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를 당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의 꿈

-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062-960-6980
광산구 시암로 340번안길 5

광산구